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2010.12, pp.107~126

예술사회학에서 개인과 집단의 관계 설정 문제

— 칼 만하임의 '존재구속성', '자유부동하는 지식인' 개념을 중심으로

The Relation of individual and social group in Sociology of Art

홍지석(성신여대 강사)

차 례

서론

1. 존재구속성

2. 자유부동하는 지식인

3. 칼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에 대한 비판들

결론

서론

예술사회학적 접근에서 일반적으로 부각되는 난제는 개별적 예술 작품과 실천을 어떻게 사회라는 전체적 문맥과 관련하여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자네트 울프(Janet Woolf)가 지적한 대로 예술가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개인'이며, 그의 예술적 표현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창조된 것이다. "개인의 창조 행위는 의미와 내용에 있어 사회적"¹⁾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 속의 예술가(the-artist-in-his-society)'를 염두에 둔 예술사회학적 접근은 예술가의 사고와 감정을 사회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대정신(zeitgeist), 세계관(weltanschauung), 계급의식, 이데올로기 등의 집단적

1) Janet Woolf, 송호근 역, 『철학과 예술사회학-지식사회학과 예술사회학의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고찰』, 문학과지성사, 1982, p.92.

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개념을 끌어들이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는 예술이라고 하는 개인적 표현이나 사고, 행위를 시대정신이나 세계관 같은 집합적 개념과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접근은 역시 어떤 인과적 틀에 따라 예술 작품(예술 실천)을 특정 시대, 또는 특정 사회의 문맥과 연루된 시대정신, 세계관, 또는 계급의식의 산물로 이해하는 접근일 것이다. “인간은 개념이나 관념, 생각 등을 생산해 내는 현실적이고 활동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발전의 최고 형태에서조차도 생산력의 발전 수준과 그에 상응하는 교류의 일정한 발전 수준에 의해 제약된다”²⁾는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주장을 즉자적으로 수용해 특정 작품을 특정 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산물로 단정하는 통속 마르크시스트들의 접근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기계적, 인과론적 접근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데, 이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이러한 접근에서는 모든 예술적인 것, 사회적인 것이 정태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예술가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을 기록하고 반영하는 존재일 따름이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 회색이 된다”는 식의 정태적 관점으로는 역사적 존재, 즉 역사적, 필연적으로 변해되고 지양될 존재를 포착하기 어렵다.³⁾ 예컨대 그러한 접근방식을 취할 경우, 우리는 예술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계급배반을 설명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런 접근은 예술, 또는 예술가의 능동적인 사회적 기능을 배제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기계적, 인과론적 접근이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어 다음의 악순환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즉 만약 모든 예술적 생산의 내용과 형식이 그것이 속해 있는 특정 조건, 또는 계급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

2)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The German Ideology*, ed. C.J. Arthur,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0, p.42.

3) 송호근, 『지식사회학』, 나남, 1990, p.205. 참조.

된다는 것을 용인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루는 연구자의 관점 역시 자신이 속해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나 계급 이데올로기에 구속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는 다른 사회적 조건이나 계급적 이해관계와 연루된 예술작품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비교문화적 연구는 불가능해질 것이다.⁴⁾ 그가 내세운 연구 결과들은 보편성,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계적, 인과적 접근을 극복할 대안은 존재하는가? 앞서 열거한 기계적, 인과론적 접근의 한계를 감안하면 이러한 대안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예술 작품이나 실천을 그것이 속해있는 사회적 문맥 속에서 정당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작품을 그것이 속해있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문맥이나 집단 의식에 귀속시키는 일은 여전히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귀속은 일대일의 인과적 연관, 기계적인 인과법칙의 수립을 배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귀속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적절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구자와 그가 속해있는 사회적 문맥, 계급적 이해관계의 거리두기, 또는 이격(detachment)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가 된다. 그러한 가능성의 확보는 그 연구의 이론적 타당성, 보편성의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일찍이 칼 만하임(Karl Mannheim)이 제시한 ‘존재구속성’, ‘자유부동하는 지식인’ 등의 개념은 매우 유용한 준거틀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들은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만하임이 사실상 최초로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제안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술을 위시한 지식 일반을 그것이 속해있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문맥과 어떻게 연관지을 것이며, 그러한 접근의 타당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논의들은 그에 찬동하든, 아니면 반

4) Janet Woolf, 앞의 책, p.45.

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대하든지 간에 만하임의 논의에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는 만하임의 논의를 검토하고 그러한 논의에 가해진 후대의 비판들과 대안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제시된 문제들에 대해 현재 상정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무엇일지를 잠정적으로나마 그려 보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1. 존재구속성

먼저 칼 만하임(karl Mannheim)이 제시한 ‘존재구속성(Seinsverbundenheit)’⁵⁾ 개념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여기서 ‘존재구속’은 말 그대로 존재가 예술을 위시한 지식의 내용과 형식을 구속한다는 것이다. 존재는 인식주체에게 어떤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만하임이 창안한 지식사회학이란 바로 이러한 지식의 존재구속성에 대한 경험적 이론에 다름 아니다.⁶⁾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접근은 특정한 정신 구조(mental structure)와 그것들이 존재하는 삶의 조건(life-situation)간 관계를 발견하는데 자신을 한정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물음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즉 어떤 주어진 사회적 조건의 유형이 어떻게 어떤 주어진 해석을 야기하는가. 이러한 수준에서 볼 때 인간 사유 내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는 항상 사유자의 현존하는 삶의 조건들에 결속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인간 사유는 사회적 진공 상태(social vacuum)가 아니라 제한된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하며 작동한다.⁷⁾

5) Seinsverbundenheit를 ‘존재구속성’으로 번역한 것은 송호근, 전태국 등의 선행을 따른 것이다. 만하임의 주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의 영문판 번역자들은 이를 ‘existential determination’으로 번역한다. Karl Mannheim, *Ideology and Utopia*, trans. Louis Wirth and Edward Shil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2.

6) 송호근, 앞의 책, pp.146~147.

7) Karl Mannheim, 앞의 책, p.71.

주목을 요하는 것은 여기서 ‘존재구속’은 결코 인과법칙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 존재란 다른 아닌 ‘의미맥락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통속 마르크시스트의 견해처럼 물질적 토대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내에서 파악되는 의미체로서의 존재라는 것이다.⁸⁾ 그리고 이렇게 존재가 의미를 갖는 것은 전체적 맥락 속에서다. 예컨대 예술 활동을 위시한 개인의 행위는 사회적 집단이라는 보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온당한 사회학적 접근은 개별적 행위를 집단 경험이라는 문맥 내부의 모든 영역에서 해석하는 것이어야 한다.⁹⁾

그런데 이렇게 사유가 그것이 발생한 사회적 조건 내지는 삶의 조건에 결속되어 있다는 것은 기회일 뿐 아니라 약점이기도 하다.¹⁰⁾ 예컨대 현존의 존재 질서에 대립하는 피지배층은 그러한 존재 질서를 기만적인 이데올로기로 간주하며 자신이 의도하고 자신에 의해 생성될 생활질서를 지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기회다. 그 기회는 피지배자가 적대자에게서 발견하는 기회다. 하지만 그들은 주어진 것을 파괴하고 변형하는 일에 대단히 강렬한 관심을 갖기에 부지불식간에 상황을 부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소들만을 보게 된다. 따라서 그는 사회의 현존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할 능력이 없다. 그에게서 시야의 확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¹¹⁾ 그런 의미에서 존재 또는 입장 구속은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다(그와 정반대의 관점에서 지배층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은 당파적, 즉 존재(입장)구속적이고 부분적이다. 지식사회학의 과제는 바로 이 부분적인 것들을 하나의 총체적 관점(Zusammenschau)에서 종합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 곧 합명제의 형성은 언제나 일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합명제 역시 ‘존재구속적’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의미 파악, 이해란 언제나 특정한 관점에 입각한 일시적인 파악, 잠정적

8) 송호근, 앞의 책, pp.186~187. 참조.

9) Karl Mannheim, 앞의 책, p.27.

10) 위의 책, p.72.

11) 전태국, 『지식사회학』,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1994, pp.307~311. 참조.

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인 이해다. 그것은 곧 다시 허물어진다.¹²⁾

이러한 논의를 그의 이데올로기론과 관련하여 다시 살펴보자. 만하임에 의하면 유토피아와 이데올로기는 존재와 불일치성을 빚고 있는 존재 초월적 표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기존의 ‘존재 질서(existing order)’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유토피아적인 것은 존재 초월적이면서도 동시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즉 기존의 질서(topia)를 비판하고 파괴하여 새로운 이상과 관념(utopia)을 현실 속에서 실현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즉 실현 불가능한 허위적인 것이다. 곧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의 기준은 ‘실현’이다”¹³⁾ 이런 관점에서 만하임은 역사의 전개를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의 순환과정으로 파악한다.

모든 역사적 사건은 바로 토피아(현존 질서)가 그로부터 솟아오르는 유토피아에 의하여 끊임없이 갱신되는 해방(ever-renewed deliverance)이다. …… 따라서 역사라는 여정은 하나의 토피아로부터 유토피아로 이끌어지며, 다시 새로운 유토피아로 (계속해서) 이어진다.¹⁴⁾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기존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존재를 초월하는 관념 세계가 현실적인 역사적 단계에 속하는 일정한 세계상 속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변혁적인 기능이 없을 때, 이 관념은 허위의식으로, 곧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만하임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의식의 형태를 선의의 존재 초월적 의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자기 기만적 의식을 거쳐서 고의적인 기만 의식에 이르

12) 위의 책, p.303. 참조.

13) Karl Mannheim, 앞의 책, p.178.

14) 위의 책, p.178.

기까지의 여러 형태로 구분한다. 만하임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의식의 여러 형태와 관련하여, ‘특수 이데올로기’ (particular Ideology)는 허위성의 심리적 측면에 관한 것이며, ‘전체 이데올로기’ (total Ideology)는 다양한 관점을 지닌 정신적 측면과 전체적인 사유 구조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구분에 입각해 만하임은 지식 사회학이 의식적인 거짓이나 은폐 작용을 폭로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의식적인 허위성에서 기인하지 않는 사유 구조, 즉 전체적 이데올로기를 사회 구조와 관련하여 탐구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요컨대 만하임이 ‘존재구속성’ 개념을 제시하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사회적 실체를 의미무관적 문맥에서 이해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연구자에 의해 행해지는 종합, 곧 합명제의 도출, 또는 전체 이데올로기의 탐색은 역동성이다.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생성의 맥락에서 가변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통일성인 것이다.¹⁵⁾ 이러한 통일성, 전체성의 파악은 사고양식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귀속시키는 가운데 그 발전방향과 충동을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¹⁶⁾ 만하임이 제기하는 귀속(imputation)이라는 방법은 초기의 직관적 인상에서 엄밀한 관찰에 이르는 모든 다양한 지식 유형을 지속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현존(social existence)과 사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상적인 추측(conjecture)은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의 단계로 이행한다. ‘시간적 자리매김(dating)’과 ‘공간적 자리매김(placing)’으로 시작해서 상이한 시간, 상이한 공간에 산재해 있는 미술작품들을 연속성을 갖는 ‘양식’에 포괄하여 규정하고 이를 다시 ‘시대정신’이나 ‘계급의식’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데 익숙한 미술사의 방법론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¹⁷⁾ 여기에는 역사적-사회적 집단의 전체적 삶은 그 자체를 상호의존적

15) 송호근, 앞의 책, p.204.

16) 위의 책, p.228.

17) Karl Mannheim, 앞의 책, p.276.

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구조체(interdependent configuration)로 드러낸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만하임에 의하면 사유는 오로지 이러한 상호의존적 구조체의 표현이고, 삶의 제 양상들의 상호작용은 그 구조체의 근본 요소이다. 따라서 이 구조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연관관계들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¹⁸⁾

2. 자유부동하는 지식인

만하임은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행하는 분석은 자기반성(self-reflection)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¹⁹⁾ 곧 이들의 분석에는 진리 판정의 주체(과학의 주체)인 인간의 자기 물음이 배제되어 있다. ‘존재구속성’이란 결국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자기-반성적인 분석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만하임에게 있어서 이해란 언제나 특정한 관점으로부터의 이해다. 이는 관찰의 대상뿐만 아니라 관찰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만하임에게서 귀속이라는 절차, 곧 문제를 선별하거나 이론화, 추상화하는 단계에서 관찰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가치판단(이나 편견), 또는 이데올로기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렇듯 관찰자의 가치판단을 허용하는 입장은 상대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론의 일반성이나 보편성, 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인 관찰자가 또한 요구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만하임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에서 어느 한 입장이나 계층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자유부동하는 지식인’을 내세워 이러한 상대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²⁰⁾

그러한 실험적 입장, 곧 사회의 역동적 본성과 전체성에 민감한 입장은 중산층

18) 위의 책, p.278.

19) 위의 책, p.125.

20) 위의 책, pp.136~138.

예술사회학에서 개인과 집단의 관계 설정 문제 9

에 자리한 계급이 아니라 계급성이 희박하며 사회적 질서 내에서 그다지 확고한 자리를 점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층에 의해 발전된다고 보아야겠다. 그와 같이 자신의 자리가 확고하지 않은(unanchored), 비교적 계급성이 희박한 계층(relatively classless stratum)은 알프레드 베버의 용어대로 자유부동하는 지식인(socially unattached intelligentsia)이다.²¹⁾

만하임이 보기에 지식인 계층은 교양을 바탕으로 정신적 유산을 창출하는 데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성원들 사이에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자신의 존립 근거에 대한 깊은 자성과 더불어 숙명적으로 전체를 위한 지적 관심을 대표하는 입장을 갖게 됨으로써 종합적 진리의 담지자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식인 계층은 물질적 이해 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하며 그래서 진리와 허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식인은 서로 배타적인 계급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해명하여 그것들이 지니는 부분 진리를 하나의 정치적 진리로 합명제(dynamic synthesis/dynamic mediation)한다는 설명이다.²²⁾

만하임의 체계에서 자유부동하는 지식인은 인간사고와 지식을 종합하는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지식인 역시 궁극적으로는 존재구속성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종합은 절대적인 지리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의 종합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종합이다.²³⁾

21) 위의 책, p.137.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영문판 번역에서 'socially unattached intelligentsia'는 독일어 'freischwebende Intelligenz'를 번역한 것이다.

22) 위의 책, pp.162~163.

23) 김덕영, 『논쟁의 역사를 통해서 본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3, p.243.

3. 칼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에 대한 비판들

지금까지 우리는 존재구속성과 자유부동하는 지식인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적 존재와 집단적 존재의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했던 만하임의 시도를 살펴 보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후대에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 그리고 하버마스 같은 프랑크푸르트의 비판이론가들의 만하임 비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 이들의 만하임 비판을 비판적으로 재고해 보기로 하자.

1) 개인적 존재와 사회적 존재의 관계

아도르노(Theodor Wiesengrund Adorno)는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이 의식적인 거짓이나 은폐 작용을 폭로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의식적인 허위성에서 기인하지 않는 사유 구조, 즉 전체적 이데올로기를 사회 구조와 관련하여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도르노는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이 진정한 형태의 이데올로기론을 거부하는 충동을 드러낸다고 비판한다.²⁴⁾ 아도르노가 보기에 사회적 현상들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그것을 전체, 즉 보편 개념들에 따라 분류하는 만하임의 작업은 사회적 존재와 개인적 존재의 일치를 어느 정도 선형적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이런 일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비판이론의 가장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다. 아도르노는 이처럼 일반화를 도모하는 만하임식 개념 세계의 질서에서 인간의 특수한 관계들이나 실제적 변화는 방기되며, 사회적 적대 관계들은 평준화된다고 비판한다. 그 결과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은 필연적으로 현실 세계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 즉 그것은 사회비판적 용어들을 이용하면서

24) T. W. Adorno, 홍승용 역, 『프리즘』, 문학동네, 2004, p.31.

동시에 그로부터 가시를 뽑아버리는 것이다.

만하임의 경우 사회 전체에 호소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회 전체 속에 얽혀있는 종속 상태를 강조하는 기능보다 오히려 전체 속의 모순들을 어중간하게 타협시킨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과정 자체를 찬양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타협을 통해 바로 사회 자체의 생활 과정을 이루고 있는 모순들이 이론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²⁵⁾

아도르노는 만하임에게서 나타나는 지식사회학적 왜곡들이 그의 방법 자체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만하임은 변증법적 개념들을 분류법적인 개념들로 바뀌놓는 오류를 범한다. 즉 만하임의 논의에서는 개별적인 논리적 집합 속에 그때그때 사회적으로 모순적인 것이 끼워 들어가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계급들이 소멸되며, 전체상은 조화롭게 변형된다는 것이다. 이 때 역사적 과정은 그 자체로 일률적인 하나의 사회적 전체 주체에 의해 조종된다는 식의 믿음이 환기된다. 하지만 아도르노가 보기에 변증법적 개념들은 그 진리의 손상 없이는 형식사회학적 개념들로 번역될 수 없다.²⁶⁾

아도르노는 만하임이 이렇듯 변증법적 개념들을 분류적인 개념으로 바뀌놓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그가 추상의 수준과 원인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아도르노가 보기에 구체적인 힘의 작용은 상이한 수준의 보편성을 띠는 도식들로 환원될 수는 있지만, 만하임이 주장하듯 어떤 일반적인 힘들이 특수한 힘들에 대립하여 자립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떠한 사건도 일반적 힘들이나 법칙 때문에 야기되지는 않으며, 인과성은 사건들의 원인이 아니라 구체적 원인들이 그 아래 집약될 수 있는 최상의 개념적 보편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게 아도르노의 생각이다. 즉 인과성은

25) 위의 책, p.33.

26) 위의 책, p.38.

1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특수한 것에 대해 부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수한 것 속에서만 관찰된다는 것이다.²⁷⁾ 이를 간과하고 일반적인 힘에 자립성을 부여할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파악되는 보편에 실체성을 부여할 경우, 이는 이데올로기들의 요구를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아도르노는 경고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아도르노의 비판은 지식사회학이 흔히 빠지게 되는 오류, 곧 일반화, 과학화를 위해 지식 내지는 예술 연구에 있어 추상적으로 파악되는 보편에 실체성을 부여하는 오류를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미국의 지식사회학자인 사이먼(A. P. Simonds)은 이 같은 아도르노의 비판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만하임에게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의미 맥락을 종합하는 일은 (허구적인) 달성된 조화를 제시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만하임이 말하는 ‘합명제(dynamic synthesis)’는 현재의 달성된 조화를 표상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탐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재정립되고(reformulate), 해명되어야만 하는 문제로 드러난다는 게 사이먼의 생각이다.²⁸⁾ 다음으로 합명제(역동적인 종합)는 아도르노가 생각하듯, 모든 반대되는 개념들의 종합이 아니라, 개념적 맥락들의 종합이다. 만하임에게서 총체적 시야(total view)라는 표준은 모든 주장, 모든 관심, 모든 교리(doctrine)들이 화해될 수 있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소통되고, 비교되고, 비판되며, 그럼으로써 담론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확대되는 지평 속에서 보편적인 장(community)이 열리며, 이 장은 지식 사회학을 위한 객관성의 준거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주체와 객체, 관찰하는 자와 관찰되는 자, 행동하는 자와 행동에 영향을 받는 자 간의 견고한 대립을 해체시킬 것이라는 게 사이먼의 기대다.²⁹⁾

27) 위의 책, p.43.

28) A. P. Simonds, *Karl Mannheim's Sociology of Knowledge*, Oxford: Clarendon Press, 1978, p.186.

29) 위의 책, pp.186~188.

이상과 같은 아도르노의 비판, 그리고 그에 대한 사이먼의 재비판은 지식 사회학이 전체와 부분을 설정하고 그것을 순환시킴에 있어 조화, 연속성이 아닌 부조화 내지는 불연속성을 전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이데올로기가 갖는 구조 형성적 기능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불연속성, 단층을 덧붙여 결핍을, (대중) 조작을 드러내는 지식사회학이 요청된다는 것이다.³⁰⁾

2) 지식인 계층의 존재구속과 역사성

다음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지식사회학에서 진리의 담지자로 상정되는 자유롭게 부동하는 지식인 개념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만하임은 어느 한 입장이나 계층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자유롭게 부동하는 지식인'을 내세워 지식사회학이 빠질 수 있는 상대주의를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아도르노는 만하임이 주장하는 바, '기능적으로 철저히 합리화된 사회 속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철저히 사고하는 일은 단지 소수의 조직가들(지식인들)의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며, 그 때문에 이들은 (자유롭게 부유하는) 결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이 소수 조직가들의 정신으로 지식사회학에서 표현되는 객관적인 정신은 사회적 기반을 꿰뚫어 보는 대신 사회적 계획들을 권장하는 데로 귀결되기 때문이다.³¹⁾ 여기에는 직접 그의 이론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만하임을 향하고 있음이 분명한 글에서 아도르노가 밝힌 바, '자유롭고 거리를 취한, 이해를 초월한 듯한 판단 형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현실적 사유를 무효로 만들어 만들어버리는 폭력을 수용해낼 능력이 없다'³²⁾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아무 탈출구도 찾지 못하는 자유주의자가 독재

30) 홍성호, 『문화사회학, 골드만과 그 이후』, 문학과 지성사, 1995, p.272.

31) T. W. Adorno, 홍승용 역, 『프리즘』, p.46.

32) T. W. Adorno, 최문규 역, 『한 줌의 도덕: 상처입은 삶에서 나온 성찰』, 솔, 2000, p.84.

1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적인 사회조직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의 대변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자유롭게 부유하는 지식인은 자신이 바꾸어야 할 존재와 동일한 존재 속에 뿌리를 두면서, 그 존재를 비판하는 척하고 있을 뿐인 존재로 격하된다.³³⁾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는 정신은 중립적이거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지식인에게 주어진 과제란 만하임이 주장하듯 계급들 사이에서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과 자기가 지지하는 억압받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⁴⁾

한편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자신을 ‘자유롭게 부동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지식인 계층의 등장이 역사적인 현상이며, 이 계층은 19세기 중반 경에 등장하여 20세기 중반 경에 소멸했다고 진단한다. 그에 의하면 부르주아 교양 계층이라는 공중으로부터의 고립을 사회적 지위 일반으로부터의 해방이라 이해하고 스스로의 자유롭게 부동하는 지식인 계층이라 해석하는 계층의 등장은 대략 19세기의 일이다.³⁵⁾

“혁명이 승리하고 차티스트 운동이 패배한 이후에 시민 계층은 양심의 갈등과 고통을 더 이상 갖지 않으며 비판의 필요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들의 권력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로써 교양 계층, 특히 문학적으로 생산적인 부분이 사회에서 완수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은 상실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대변자 역할을 해왔던 사회계급으로부터의 절연을 목도했으며, 자신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시민계층과 비교양 계층 사이에서 완전한 고립을 느꼈다. 이러한 느낌과 더불어 부르주아적 뿌리를 가진 교양 계층으로부터 우리가 ‘지식인 계층’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구성물이 출현하였다.”³⁶⁾

33) T. W. Adorno, 홍승용 역, 앞의 책, p.47.

34) 이종하, 「호르크하이머의 이데올로기 비판」,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 41집, 2009.

35) J. Habermas, 한승환 역, 『공론장의 구조 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나남, 2001, p.284.

36) 위의 책, p.284.

그러나 1세기 후, 곧 20세기 중반에 이르면 이 지식인 계층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통합된다. 보수를 선호하는 문화관료 집단은 룬펜 프롤레타리아적 보헤미안으로부터 관리 및 관료적 지도층의 존경받는 집단으로 상승했으며, 전위는 하나의 제도로서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³⁷⁾ 이런 관점에서라면 만하임이 기대하는 바, 진리의 담지자로서 자유롭게 부동하는 지식인 계층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저널리스트인 아브레스터(A. Arblaster)의 발언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지성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면, 집단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만하임의 이상과 떨어져 있는가는 금방 분명해진다. 사회적 초연(detachment)은 커녕 그들 중 많은 수가 편파적이 되었다. 그로부터 탈피한 경우라도 노예 근성은 어쩔 수 없었다. 아마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다양한 제도적 압력이 의견을 달리하는 자를 처벌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금할 때, 침묵을 지키거나 표면적으로 복종했다. 더욱 나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 제도나 기존의 교리의 도구로 전락한 경우다.”(1973)³⁸⁾

하지만 만하임이 말하는 ‘자유롭게 부유하는 지식인’ 개념을 유연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예컨대 송호근에 의하면 만하임에 있어 지식인의 역할은 사회적 모순과 대립을 극복하는데 있어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으로 이해하는 편이 옳다. 말을 바꾸면 지식인은 ‘종합화의 수행자’ 이전에 자기 내부와 사회 속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진실과 지배 이데올로기 간에 어떤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깨달은 자로, 이러한 깨달음은 곧 사회의 근본적 모순, 즉 계층 간 갈등을 드러내는 일로, 지배자가 주입시키는 신화, 가치관, 전통의 허물을 벗겨내는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다.³⁹⁾ 이런 견

37) 위의 책, p.285.

38) 송호근, 앞의 책, p.221.

39) 송호근, 『칼 만하임의 지식사회학 연구』, 홍성사, 1983, p.224.

1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지에서라면 부유하는 지식인이란 선부르게 분류하고, 규정하며, 종합하는 (그럼으로써 거짓된 화해에 이바지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늘 언제나 종합을 염두에 두면서 비판을 수행해가는 존재로, 뚜렷한 역사적 실체로서 보다는 요청되는 잠재적 존재로 부각될 것이다.

결론

일찍이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은 현대인들이 ‘양식’, ‘시대적 특성’, ‘보편적 정서’를 본질로 하는 대상으로 자신의 삶과 환경을 꾸미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짐멜이 보기에 이런 성향은 지나치게 개인화된 삶에 대해 일종의 차분한 분위기와 전형적인 법칙성을 가미하려는 깊은 욕구에 기인한다.⁴⁰⁾ 그런데 주목을 요하는 것은 전적으로 단 한 가지의 역사적 양식을 따르는 사물들로 이루어진 환경은 곧 그 자체가 완결된 통일체로 집결되면서 그 안에 사는 개인들을 그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점이다. 그래서 짐멜은 “다양한 양식을 지닌 물건들로 집단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꾸미는” 개인을 강조한다.⁴¹⁾ 짐멜에 따르면 이 개인을 통해 새로운 중심이 드러난다. 이러한 중심은 일종의 주관적인 통일체로서 그 안에서는 물건들 안에 침투되고 동화된 개인의 영혼을 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을 통한 물건의 조합에서 하나의 새로운 전체상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상에서 나오는 총합과 총체적인 형식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특별한 분위기를 지닌 개인적 인격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⁴²⁾

이렇게 개별과 보편, 개인과 집단의 느슨한 선택 관계를 강조하는 짐멜의 논의는 예술사회학의 수준에서 개인과 집단의 적절한 관계설정을 모색

40) Georg Simmel, 김덕영, 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p.119.

41) 위의 책, p.121.

42) 위의 책, pp.125~127.

예술사회학에서 개인과 집단의 관계 설정 문제 17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하임의 '존재구속성'과 '자유부동하는 지식인' 개념에 대한 검토의 과정에서 우리는 지식 사회학(우리에게는 예술사회학)이 개인과 집단, 전체와 부분을 설정하고, 이 양자를 순환시킴에 있어 조화, 연속성이 아닌 부조화 내지는 불연속성을 전제할 필요가 있음을 보았다. 요컨대 이데올로기가 갖는 구조 형성적 기능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불연속성, 단층을 덧붙여 결핍을, (대중) 조작을 드러내는 지식사회학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러한 연구의 주체내지는 진리의 담지자로서 지식인은 자신이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의식하면서도 계층 간 갈등을 드러냄으로써 지배자가 주입시키는 신화, 가치관, 전통에 도전하는 실천자로서 부각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았다. 그렇다면 자유롭게 부동하는 지식인은 만하임의 생각처럼 역사적 실체로서 보다는, 오히려 윤리적 요청 사안으로서 지식사회학 연구에 중요할 것이다.

1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참고문헌

- 김덕영, 『논쟁의 역사를 통해서 본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3.
- 송호근, 『칼 만하임의 지식사회학 연구』, 홍성사, 1983.
- _____, 『지식사회학』, 나남, 1990.
- 전태국, 『지식사회학』,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1994.
- 홍성호, 『문학사회학, 골드만과 그 이후』, 문학과 지성사, 1995.
- T. W. Adorno, 홍승용 역, 『프리즘』, 문학동네, 2004.
- _____, 최문규 역, 『한 줌의 도덕: 상처입은 삶에서 나온 성찰』, 솔, 2000.
- Mannheim, Karl., *Essays on the Sociology and Social Psychology*, ed, Paul Kecskemeti, Routledge and Kegan Paul, 1953.
- _____, *Ideology and Utopia*, trans. Louis Wirth & Edward Shils, Routledge and Kegan Paul, 1972.
- Simmel, Georg., 김덕영, 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 Simonds, A. P., *Karl Mannheim's Sociology of Knowledge*, Clarendon Press, 1978.
- Habermas, J.,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 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나남, 2001.

Abstract

The Relation of individual and social group in Sociology of Art

Hong, Ji Suk

One of the significant issues of Sociology of Art is: "How can do we relate individual art work and practice with whole context of society?" Sociology of art that consider 'the-artist-in-his-society' need to draw a collective concept like Zeitgeist, view of the world(weltanschauung), class consciousness, ideology etc. in order to understand thought and emotion of individual artist In sociological viewpoint. But in this case we must exclude one-by-one causal connection or the mechanical rule of cause and effect. For we want not to drop the dynamic quality of individual art work and practice. Also, we need suitable arrangement of investigator who run such attribution. He who investigate the connection of art and society should secure the possibility to keep distance with social context or the class interest.

We can get following conclusion in process that examine criticism of Frankfurt school in reply with the concept like 'existential determination', 'socially unattached intelligentsia' of Karl Mannheim. First of all, Knowledge sociology and Sociology of Art need to approve the lack of harmony or discontinuity in making

20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connection of part and whole(individual/society). We cannot deny the structure-formation function of ideology. But We need to expose the lack of ideology or the (mass)manipulation by finding the crack of ideology. And second, We need to understand the intelligentsia or artist as the witness of the dominant ideology of society as well as the doer who challenge the myths, values, tradition of dominant ideology. In short, They must be regarded not as the historical substance but as the ethically required existence.

주제어 : 존재구속성(existential determination), 자유부동하는 지식인(socially unattached intelligentsia), 칼 만하임(Karl Mannheim), 예술사회학(Sociology of Art), 이데올로기(Ideology)

논문 접수일	2010. 11. 10.
논문 심사일	2010. 11. 25.
게재 확정일	2010. 12. 10.